

# '임실N펫스타' 펫 축제 위상 확립

### 주 행사장 오수의견 관광지로 확장 이전... 역대 최대 8만7000명 방문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성지 임실군에서 열린 '제41회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2026 임실N펫스타'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반려견과 반려인 등 수많은 인파 속에 성황리 막을 내렸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에는 총 8만 7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대비 6% 증가한 수치로 의견문화제와 펫스타를 연계, 개최한 이후 역대 최대 방문 기록이다.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성지 임실군에서 열린 제41회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2026 임실N펫스타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반려견과 반려인 등 수많은 인파 속에 성황리 막을 내렸다. 사진은 FC(세계애견연맹) 어질리티 경기대회 모습.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주 행사장을 기존 오수의견공원에서 오수의견관광지 전역으로 확장·이전한 점이다. 넓은 공간을 기반으로 관람 동선을 분산시켜 혼잡도를 낮추고 드넓은 잔디광장과 반려동물 친화시설을 활용해 방문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여기에 1천여개의 수국화분을 비롯한 경관개선이 더해지며 축제장은 단순한 행사 공간을 넘어 머물고 싶은 감성형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또한, 홍보담당관을 중심으로 한 방송·인론·SNS 연계 홍보가 더해지며 전국단위 방문객 유입을 견인했다.

프로그램 구성도 한층 전문화됐다. 새롭게 도입된 FC(세계애견연맹) 어질리티 경기대회, 'KKF(한국애견연맹) 위그렛 미용 경진대회', '오수 마스터스 데이' 등 신규 콘텐츠가 확대되며 축제의 완성도를 높였다.

반려동물 토크쇼에는 3일간 이용종교수, 설채현 수의사, 강형욱 훈련사가

차레로 나서 행동교정과 건강관리 노하우를 공유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특히, 감성보컬그룹 V.O.S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반려동물 패션쇼는 개성 넘치는 런웨이를 화제를 모았으며, 반려동물 동반 열차인 '방명드레인'을 통한 전국 단위 방문객 유입도 눈에 띄었다.

역대급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축제운영이 가능했던 데에는 군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큰 역할을 했다. 군은 행사장 주변 13개소에 총 1,464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진입로를 정비하여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이번 축제기간 동안 치즈를 러스터와 향토음식점, 농특산물 판매

등을 포함한 총 매출액은 약 2억9000만원을 기록하며 축제가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효과까지 입증했다.

축제의 열기는 화려한 공연으로 이어져 개막공연의 걸려원, 손빈아 등을 비롯해 마지막 날 최갑석 가요제와 함께한 예능, 문화유 등의 무대가 축제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심 민 군수는 "자신의 몸을 바쳐 주인을 구한 오수 의견의 고장이자 반려동물의 성지인 임실군을 찾아주시는 수많은 반려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천년을 이어온 오수 의견의 스토리를 잘 계승하여, 임실을 세계적인 반려동물 문화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진총영 기자

# 지역장인 기록 '남원의칼' 개발

### 남원시, 지역기반 가상융합 서비스 제작실증 지원사업 선정

남원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6년 지역기반 가상융합 서비스 제작실증 지원사업'에 지정 과제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8,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원다움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장인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남원의 전통 대장간 기술을 소재로, 관람객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기록 콘텐츠 '남원의 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콘텐츠로는 관람객이 체험 테이블에서 직접 대장장이가 되어 철을 달고 두드리는 역동적인 과정을 시각·청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증강현실(AR) 체험 게임이 마련된다. 또한, 남원 장인들의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아카이브 패널을 남원다움관 내에 함께 조성하여 지역 문화 자

산의 소중한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다움관은 이번 성과를 포함해 2026년까지 국가공모사업에 총 10회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는 지역의 기록 자원을 꾸준히 수집하고 이를 첨단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재창출해 온 남원시의 취지와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꼽힌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남원의 칼' 콘텐츠는 점차 잊혀져 가는 지역 장인들의 발자취를 첨단 가상융합 기술로 되살려, 생생한 체험형 기록으로 돌려드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남원다움관이 단순한 기록 보존을 넘어, 전 세대와 소통하는 살아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올댓트래블(ALL THAT TRAVEL)' 박람회에 참가해 순창의 전통 발효 문화와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하며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 전통 발효 문화·관광자원 홍보

### 순창군, 올댓트래블 박람회 참가

순창군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올댓트래블(ALL THAT TRAVEL)' 박람회에 참가해 순창의 전통 발효 문화와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하며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올댓트래블' 박람회는 코엑스와 이데일리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대표 관광 전문 행사로, 전국 지자체와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역 관광자원과 최신 여행 트렌드를 공유하고 관람객과 업계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복합형 관광 플랫폼이다.

순창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순창장류축제, 감천산 군립공원, 발효테마파크,

양지천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과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순창만의 차별화된 관광매력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순창장류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비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점을 부각하며, 순창의 전통 발효 문화가 세계적인 관광 콘텐츠로 도약하고 있음을 널리 알렸다.

박람회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순창의 발효 문화와 자연 관광자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인상 깊었다"며 "장류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고, 직접 방문해 보고 싶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군, 알락하늘소 피해 선제 대응

순창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알락하늘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알락하늘소 대량 유인 포획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알락하늘소 성충이 산란 과정에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순창군은 관내 주요 과수 농가에 전용 트랩과 유인제, 유인제 방출기 등 총 144세트의 방제 장비 공급을 완료했다.

알락하늘소는 주로 나무 밑동에 알을 낳고, 부화한 유충이 나무 내부를 갉아먹어 과원을 황폐화시키는 해충으로, 특히 블루베리 농가에 경제적 피해가 큰 해충으로 꼽힌다.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성충 활동기인 6월부터 7월 사이에 트랩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치 장소는 블루베리 발 인구 바깥쪽이나 과원 외부가 적절하며, 트랩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야 유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트랩 통의 높이는 성인 가슴 정도 위치에 맞춰 설치해야 포획률을 높일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소방서, 소방기관 사칭 사기 주의 당부

임실소방서(서장 김상근)는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민과 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사기 수법은 소방서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해 전화나 문자로 접근한 뒤 "소방 규정이 변경됐다", "점검 예정이니 소방용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업체를 통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임실소방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공문·문자 확인 △소방용품 구매 요구 시 사실 여부 확인 △공전 입금 요구 시 즉시 거절 △관할 소방서 또는 경찰 신고 등을 당부했다.

/임실=진총영 기자

# 남원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남원시는 탄소중립 실현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1,650만원의 예산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을 5월 4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규모는 총 5대이

며,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 대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저감장치 부착시 정치가격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생계형 차량(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

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진단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남원시청 환경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

임실군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5월 6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창구는 모두 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

래인 납세자를 지원한다. 그 밖의 납세자는 F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비대면 전자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일반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모바일 앱 '손택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한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임실=진총영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명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